

# 여유있게 책을 만들었으면...



이 원 준

(주)대성미생물연구소  
기획관리실 차장

**사람** 이 살아있는 기간 즉 일생을 매우 짧다고들 한다. 누구나 자신의 지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고 현재를 생각하면 사람의 한평생이 결코 긴 시간은 아님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느낌은 주관적이라서 사람마다 상황마다 길고 짧음이 다를 것이다.

「낙농육우회보」가 겪었던 지난 한해는 어떠했을까? 잘모르긴 하지만 바쁘기로는 짧은 일년이었고 고통스럽기로는 긴 한해였으리라 생각된다. 원래 한달에 한번씩 책을 만들어내는 일이 무척 어려운 일이다. 장사하는 사람은 지난 달에 밀린 것을 다음 달에 만회할

수 있는 여유가 있지만 월간지는 몇달 쉬었다가 한꺼번에 여러권 만들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일년 열두달 발간되는 책들이 하나같이 볼만한 것들이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여유가 없게 마련이다. 「낙농육우회보」에 나름대로의 바람이 있다면 막연한 얘기지만 여유 있는 자세로 책을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여유는 게으른 것과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면을 찾을 기회를 준다. 「낙농육우회보」가 필요한 여유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 책내용의 여유 등이 포함된다. 양계나 양돈 단체에서 발간하는 월간지에 비하여 「낙농육우회보」는 그 발행부수가 몇배가 되어 제작경비가 타지와 비교가 안될 만큼 많이 든다. 이를 광고비 만으로 충당키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된다. 즉 경제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속회원들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축종인 닭이나 돼지에 비하여 소는 덩치도 제일 크고 회원도 가장 많으면서 회보 하나 만드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뒤따라

서는 안된다고 본다. 시간적인 여유를 갖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책의 운송, 포장이나 광고발주, 기타 잡무에 뺏기는 시간들을 최대한 줄여야하며 취재와 편집에 활용하는 시간을 대폭 늘려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책내용의 여유를 갖는 것과도 연관된다. 「낙농육우회보」는 독자가 낙농가와 육우농가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되도록이면 많이 실어주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내용들도 매우 알차고 짜임새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좀더 바람이 있다면 「낙농육우회보」에는 정책적인 문제에 대한 내용이 많이 게재되는데 한가지 주제에 대하여 여러사람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점을 지양했으면 한다. 그러한 내용들이 독자인 양축가가 일반적으로 느끼고있는 것들이라면 요약 정리하여 게재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고 책의 독자가 정치가나 일반국민이 아님을 생각했으면 싶다. 일반적으로 축산에 관계되는 기술적인 전문서적은 양축가가 구하기도 힘들고 구한다해도 실제 사양

관리에 적용시키기가 힘들다. 때문에 「낙농육우회보」에서는 이에 대한 지면을 대폭 늘려서 기술지

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낙농육우회보」를 이끌어온 직원

들께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며 끊임없는 발전을 기대한다. ■

## 사실을 진실되게 전달하는 월간지의 역할을...



조 용 환  
축산신보사 기자

“지가 진빛은 지가 갇두록 노력해야지유. 이빛을 어찌 아들놈에게 떠맡긴대유.” 이말은 지난 50여년간 한우를 정성껏 그리고 열심히 키우면서 어제와 오늘을 살아가고있는 어느 칠순 촌로의 하소연이다.

지난83년 만물이 소생하던 봄 이촌로는 큰마음을 먹고 한우8두를 입식했으나 정부가 무자비하게 수입한 생우·쇠고기로인해 소값이 폭락, 소파동의 여건이 아직도 크게 남아있다.

반세기간 닭은 경험과 소를 불줄알았던게 죄아닌 죄가되어 상당한 액수의 빚을 걸며쥐고 만 이촌로는 그피해를 아들에게는 안겨주지 않기위해 요즘도 새벽 다섯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손발이 부르뜨도록 소사육에 전념중이다.

우리땅에는 이촌로와 함께 소를 키우는 사람이 80여만명에 이른다.

그런데 또다시 쇠고기가 수입되다니 —. 그것도 정육·지육은 물론 갈비까지 들어오고 「품질좋은 수입쇠고기...」운운하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민기지도 않았던 선거공약을 지키지는 못할지언정 소를키우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수있도록 제도적·행정적인 지원대책은 마련해줘야 되는데도 이에따른 대안조차 낙농육우인들이 납득하지 못할만치 제시해놓고 머뭇거리고있는 축산정책 입안자가 못내 원망스럽기까지하다.

어쨌든 다사다난했던 무진년 한해는 막을내리고 희망에찬 기사년의 새해는 밝았다. 지난해는 그어